

2013년 경찰간부 한국사 기출 총평 및 해설 (윌비스경찰간부학원 박기현 교수)

1. ①의 강화도의 고인돌은 청동기 유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유적지이며 ②은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백제의 대표적 불상인 서산마애삼존불이다. ③의 익산시는 고대에는 금마저라 불렸으며 한성에서 검모잠과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던 보장왕의 조카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금마적으로 이동하여 신라의 지원 아래 웅진도독부의 당나라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후 신라 문무왕은 금마저 일대를 보덕국이라 칭하고 안승을 왕으로 임명하여 신라 지배층 내로 편제하였다. ④의 신라 진흥왕의 영토 팽창을 보여주는 순수비는 창녕순수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로 안동은 진흥왕 이전 이미 신라 영토였으므로 순수비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2. 발해의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로는 서경 압록부를 출발하여 압록강을 따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조공 로와 동경 용원부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는 무역으로, 남경 남해부를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신라로 이어지는 신라도 그리고 상경을 출발하여 거란으로 이어지는 거란도와 상경을 출발하여 구국을 거쳐 영주로 이어지는 당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3. 민무늬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이다.
4. 보기의 그는 고려 숙종 때 활동했던 승려인 대각국사 의천이다. ③의 수선사결사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보조국사 지눌의 활동이다.
5. 8조 법금이 존재했던 나라는 고조선으로써 고조선은 단군왕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정일치사회였다.
6.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김 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기 시작한 시점은 내물왕 때이며 이 시기부터 이전에 불리던 이사금이라는 칭호 대신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7. 신문왕 때 설립되었던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 조교 등을 두어 유교교육을 강화하고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경덕왕 때 일이다. 성덕왕은 국학에 공자와 10철(哲), 그리고 공자의 72제자의 화상(畵像)을 당에서 들여와 안치하였다.
8. 보기의 계율은 원광법사가 화랑을 위해 만든 세속오계의 내용이다. 신라에서 화랑도의 역할은 지도자인 화랑은 귀족의 자제이지만 낭도는 귀족의 자제부터 평민의 자제에 이르는 구성원으로 이는 신라의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9. 보기의 (가)의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양식이며 (나)의 고분은

5-6세기 무렵 신라에서 발달한 고분 양식으로 도굴이 쉽지 않아 많은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 천마총이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닌 부장품 중의 하나였다. (다)는 백제 초기의 돌무지무덤 양식으로 이는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무덤 양식과 유사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세력이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라)는 4세기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무덤양식으로 도굴이 용이해 부장품은 남아있지 않지만 돌방 벽면에 많은 벽화를 남겼다.

10. 정약용의 저술인 목민심서의 이 자료는 당시 신분제가 중요하여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고 중인과 요호부민 등이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향촌의 새로운 실력자인 신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약용은 정조 때 관직에 올라 신유박해(1801) 때 유배길에 올라 많은 저술을 남겼다. 노비종모법은 이 자료의 신향의 등장과 양반의 몰락과 관련이 없는 영조 때 실시한 양인확보책이었다.
11. 이 문서는 신라의 민정문서의 내용이다. 민정문서에 등장하는 내시령답과 관모전은 각각 관료에게 지급된 토지와 관청 소속의 땅을 가리킨다. 촌주가 소유한 땅은 촌주위답으로 별도로 지급되었다.
12.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있던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이 시기는 고구려는 수와의 전쟁으로 신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나라가 멸망한 후 642년 백제와 연합하여 성왕 때 빼앗긴 당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였으나 신라가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는 등의 외교정책으로 인하여 당항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13. 조선전기까지는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회풍속의 영향으로 남귀여가혼이나 자녀군분상속 등의 가족제도가 운영되다가 조선후기 예학의 발달 이후 가부장제가 정착하면서 친영제도와 적장자우선상속, 양자 제도 도입 등이 나타났다.
14. 고려시대 향리는 향직에 대한 대가로 외역전을 지급받고 부호정 이상의 자제인 경우 과거 응시도 가능하였다. 또한 기인의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 자식이 아닌 본인이 대상으로 중앙에 올라가 직역을 담당하였다.
15. 보기에서 말하는 토지는 군인전에 해당한다. 고려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고 군직이 세습되는 직역으로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이면 군직에 따라 군인전이 지급되었으며 60세 이상이 되어 자식이 없거나 전쟁에서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군인전을 회수하고 구분전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16.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된 광무개혁은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구본신참의 원칙에 의해 시행되었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추진된 광무개혁은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는 문명개화론에 입각해 추진된 메이지유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메이지유신을 본 따 시도된 개혁은 갑신정변이었다.
17. ㉠은 야별초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가 병력이 증가하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눈 후 대몽항쟁기 몽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의군을 구성하여 좌, 우별초, 신의군을 묶어 삼별초라 칭하였다.
18.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 때 간행된 의서이며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강화도의 최이 정권 때 간행된 남명천화상종증도가는 금속활자에 의해 간행된 책이다. 이는 서양보다 앞선 금속활자의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려의 인쇄술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19. 이 사료는 고려의 노비제도 중 사노비의 외거노비에 해당한다. 외거노비는 상전의 집 외부에 살면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능력에 따라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외거노비는 이 재산을 바탕으로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 노비의 가치는 남자 노비보다는 여자가 더 가치가 높았다. 이는 천자수모법에 따라 노비의 소유권이 모계쪽 주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20. 조선시대 공식적인 향촌 자치기구로 기능했던 것은 유향소이며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향소는 자치적으로 향규라는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향촌 사족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하였다.
21.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한 교육기관은 성균관과 지방 군현에 설치한 향교가 있었다. 성균관과 향교는 공자를 배향하는 문묘가 있는 대성전과 강당인 명륜당을 갖추고 있었으며 향교의 경우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였으며 교육과정은 지방관의 감독 하에 두었다. 따라서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향교를 가리킨다.
22. ㉠ 조선 전기에 음악을 관장하던 기관은 장악원이며 ㉡ 정간보는 세종 때 아악과 함께 정리되었다. ㉢ 악학궤범은 성종 때 성현, 유자광 등에 의해 편찬된 음악이론서이다.
23. 세종 때 시행한 공법은 전세 제도인 답험손실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 제정된 풍흉에 따라 4두에서 20두를 차등 징수하는 연분9등법과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한 전분6등법이다. 이는 공법 논쟁으로 불리며 여론을 모아 세종이 실시하였다.

24. 비변사는 16세기인 삼포왜란(1510) 때 처음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을묘왜변(1555) 이후 상설기구화 하였다. 따라서 비변사의 공식 업무 일지인 비변사 등록은 삼포왜란이나 을묘왜변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광해군 이전의 비변사 등록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25. 이 정책들은 탕평정치를 실시했던 영조의 정책이다. 영조는 감포론에 기반을 둔 균역법을 실시하여 균역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다. 신해통공과 초계문신제는 정조 때 시행된 정책이며 호포제는 대원군 때 실시되었다.
26. 화랑세기는 8세기경 한산주 도독이었던 김대문이 작성한 1세부터 15세까지 풍월주를 지냈던 화랑들의 기록을 전하고 있다.
27. 보기에서 말하는 신분은 금고(禁鋼)를 가한다는 문장으로 미루어 문과 응시를 금한 서얼금고법이 적용되던 서얼을 가리킨다.
28. (가) 그림은 18세기 혜원 신윤복의 풍속도이며 (나)는 17세기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인 인왕제색도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17-18세기의 조선 후기의 예술 경향을 묻는 문제로 ①의 악장문학은 고려와 조선의 궁중음악에서 불린 노래 가사를 포괄하며 한국문학에서는 조선 왕조 초기의 특정한 시가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29. 보기의 그림은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으로 정식 명칭은 광개토대왕공적기념호우(廣開土大王功績紀念壺杆)이다. 1946년 발견되었으며, 이 그릇 밑바닥에는(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乙卯年廣開土之好太王))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한 사실을 증명한다.
30. 박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신문은 한성순보로 1883년이며 경복궁에 처음 전등이 가설된 것은 1887년,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처음 전차가 개통된 것은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설립된 해는 1907년이다.
31. 보기의 자료는 청나라 외교관 황쑨센이 작성한 <조선책략>으로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들여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인 러시아 견제를 위한 연미론이 위정척사운동을 불러와 이만손 등이 중심이 된 <영남만인소>의 계기가 되었다.
32. 보기의 자료는 1895년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조서로써 부국강병을 위한 교육의 필요

성을 역설하였다. 이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갑오 2차, 3차 개혁에서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3.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자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요동의 반환을 일본에 요구하는 삼국간섭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일본은 요동을 청에게 반환하였고 국내에서는 잠시 친러내각이 구성되었다. ③의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일본의 밀약은 1905년 맺어진 카쓰라, 태프트 밀약이다.
34. 보기에서 밑줄 친 그들은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해당한다. 거란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1차 침략 때 서희의 담판, 2차 침략의 원인이었던 강조의 정변과 양규의 격퇴, 3차 침입 때 을지문덕의 귀주대첩과 이후 개경의 나성 축조와 천리장성 축조이다.
35. 대한광복회는 김좌진, 박상진 등이 1915년 설립한 단체로 공화정체 국가 건설과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36. 1930년대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시기로 국내의 민족운동이 위축되었던 시기로 주로 역사와 국어연구 같은 운동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이다. 1934년 안재홍과 정인보 등의 학자가 처음으로 주창한 운동인 조선학 운동은 다산 서거 99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운동으로 이듬해 여유당전서를 편찬하였다. ①③④의 민족운동이나 문학과 예술의 경향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37. 1938년 국가총동원령 이후 진행된 일제의 전시동원정책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등의 일본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징용, 징병 등의 인적 자원 수탈도 병행되었다.
38.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구성하고 항일전쟁에 돌입한 시기는 총칭임시정부 시기로 1940년이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개헌을 통해 기존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개편하였으며 한국독립당을 총해 임시정부를 영도하는 이당치국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②의 시기는 홍커우 공원 의거 이후인 1932년이며 ③은 1923년. ④은 1935년 11월 김구 등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항저우에서 조직한 정당이다.
39. 보기의 자료는 1946년 10월 발표된 여운형, 김규식에 의해 주도된 좌우합작운동의 좌우합작7원칙의 내용으로 초기에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으나 좌파인 박헌영, 우파인 이승만, 김구 등이 참여하지 않은 중도파만의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독립당이 반대한 것은 조소앙이 반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전제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40. ㉠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조치이며 ㉡은 장면 내각이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이었으나 5. 16군사정변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제정책이며 ㉣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진행된 경제현상이었다.